

광주 소아과 적지 않는데...오픈런 왜?

소아청소년과 현재&미래 <상>문답는 병원

코로나때 호흡기 질환 줄면서 환자 감소...경영난 늘어 마스크 해제에 내원환자 ↑...“원장 유명세 따른 현상”

최근 전국적으로 ‘필수의료 붕괴’, ‘소아청소년과의 위기’, ‘소아과 오픈런’ 등의 말들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간 국내 출생자 수가 43% 급감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 감소는 단 2.2%에 불과해 ‘오픈런’ 현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소아 환자 감소로 인한 병원 경영난 가중과 심화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및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20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동병원. 진료 시작을 30분 앞둔 시간이지만, 이미 대기석은 만석이다. 아이의 마스크를 단단히 고정하던 A씨는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가 열이 나고 울어서 앞이 깜깜했다. 유능하다고 소문난 B 원장님이 있는 이 병원을 찾게 됐다”며 “줄이 길어 회사에 반차를 내

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 소아청소년과 병원에서 진료료 받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수는 출생아 대비 적지 않아 이같은 상황의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광주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동구 3곳, 서구 5곳, 남구 6곳, 북구 5곳, 광산구 9곳 등 총 28곳(전문의외명)이 운영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등까지 포함하면 광주 전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최소 128명이다. 또 일반 종합병원 등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종합병원 총 병원 수까지 더할 경우 통계청 추산 총 41곳으로, 전문의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생아 추이는 어떨까.

지난 10년 간 전국 출생아 수는 2013년 43만6천500명에서 2022년 2만9천900명으로 43% 곤두박질 쳤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13년 2천188곳에서 2022년 2천135곳으로 약 2.2% 감소에 그쳤다.

광주지역을 보면 출생아 수는 2013년 1만2천729명에서 2022년 7천411명으로 41.5% 줄었고,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57곳에서 41곳으로 28% 감소했다.

그러나 전문의가 5명 이상 있는 대형 아동병원·종합병원 개원과 출생아 수 감소를 비교해보면 ‘오픈런’을 부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지역 의료계는 ‘오픈런’ 현상을 코로나19가 불러왔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국 조선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3년여 간 코로나를 겪으면

서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질환이 확연하게 줄었고, 이에 아동·청소년들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인력을 축소하거나 소아과를 포기했다”며 “하지만 마스크 해제로 호흡기 등 바이러스 질환이 유행으로 변했고 부모들이 일부 유명한 원장이나 병원을 찾으면서 오픈런 현상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한승표 광주시 소아청소년과 개원협의회장은 “출산율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 소아 환자가 크게 줄면서 소아청소년과 병원 상당수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는 폐이타터 등의 고용 해지와 타지역 유출로 이어졌고, 현재 일부 인기 있는 대형 아동병원 등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와 별개로 전공의의 소아

청소년과 기피현상에 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전문의가 줄어든 상황과 ‘오픈런’ 등 업무 과중을 본 전공의들의 외면 현상이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정년에 임박하면서 대체 인력이 없어 필수의료 체계의 붕괴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재 광주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대부분이 정년을 앞두고 있다. 젊은 전문의가 메워야 할 자리를 채우지 못해 정년을 연장하는 의료진도 다수”라며 “전공의 외면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료계 붕괴는 사실이 될 것이다.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복기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환자가 배식에 청소까지”

파업 중노조, 증언대회 열고 실태 폭로...“부적절 관행 바로 잡아”

단체협약 승계와 호봉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 6일 차에 돌입한 광주시립제1요양 정신병원 노조가 병원 내부 실태를 폭로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제1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는 2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데도 환자가 배식과 청소일을 돕거나 세탁물 정리를 하고 있다”며 “환자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환자가 환자를 목욕시키고 혈압 체크를 하는 등 의료 보조가

지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2월 위탁경영을 맡은 빚고을 의료재단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병동을 통합 운영, 간호사와 보호사 각각 1명이 100병상을 돌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노조 관계자는 “정신병동 특성상 환자들이 약을 삼키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가 빈번해 2명 이상이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병원 측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보호사의 휴게 시간을 늘려 환자들보다 보호사들이 일찍 취침, 간호사 혼자 모든 투약을 해야 해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사들이 휴가 등으로 근무에 변동이 있을 시 대체인력을 투

입하지 않고 줄어든 인원으로 병동을 운영해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적자해소를 위해 비급여약제비를 인상하거나 사측에 반대하는 파케팅을 한 노조원을 해고하고 회식 자리에서 ‘휴가권 추첨’을 문란한 점 등을 지적했다.

끝으로 노조는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이지만 보호사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며 “병원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호봉제 임금체계 유지 및 의료환경 개선, 해고 조항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지난 15일 파업에 돌입했으며 병원 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고 있다. /안태호기자



병원 내부 부조리 ‘증언대회’ 임금·단체협약 승계와 공공의료 강화 등을 놓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제1시립요양·정신병원 노동자들이 20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병원 내 부조리 실태를 공개 비판하는 ‘증언대회’를 가졌다. /김애리기자

“日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정부와 전남지사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

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5개 연안 시·도가 공동으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회의를 열릴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회의 회의를 지역 현안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잠

정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전남도민들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정기자

술취해 시민·경찰 폭행 전과 50범 승려 檢송치

50차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던 50대 승려가 누빈기간 중 술에 취해 시민과 경찰관을 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따르면 행인과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승려 A(54)씨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 수기동 한 모텔 주변에서 길을 가던 시민 2명을 때린 혐의다.

또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B경사의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길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들을 때리고, 지구대에서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려해 B경사가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50차례 비슷한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안태호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의식산업(주) 출장부페